

C-8. 치은두께와 임상검사지수들과의 상관관계

김성준, 김태일, 설양조, 이용무, 류인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1. 연구배경

치은퇴축은 지각과민 혹은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치은의 두께가 얇은 경우 두꺼운 치은에 비해 더 많은 치은퇴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치주치료나 보철치료를 계획함에 있어 치은퇴축 여부를 예상함에 있어 치은두께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심미적인 치료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치은의 형태를 임상적으로 두껍고 편평한, 얇고 만곡된 두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두꺼운 쪽이 치주조직이 더 섬유화되어 있어 치은퇴축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얇은 치은의 경우에는 흔히 치은퇴축이 예상된다. 두껍고 얇은 치은형으로 분류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치관의 형태, 각화치은의 폭경, 치경부의 형태, 치주낭의 깊이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평가기준으로 판단된 치은형과 실제 치은두께와의 상관관계와 임상검사시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과 치은두께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재료

209명의 치과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소마취하에 근관치료용 파일을 치은에 삽입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평행촬영법으로 이용한 방사선사진에서 치아의 장평비율 측정하였다. 치주낭깊이, 치태지수, 치은지수, 체형 및 비만도, 피부형, 치아의 형태, 치경부의 형태, 치관의 장평비율, 치은의 형태, 관측자가 임의로 판단한 치은형을 기록하고 치은의 두께를 기준으로 얇은 군과 두꺼운 군의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통계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치주낭 깊이, 치은지수, 체형 및 비만도, 피부형, 치아의 형태, 치경부의 형태, 치아의 장평비율의 경우 실제 측정하여 얻은 치은의 두께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치은의 형태는 치은의 두께와 상관성은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관측자가 임의로 평가한 치은형과 실제 측정치도 유의할만한 일치율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결론

치은의 형태는 치은의 두께를 예상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치은의 두께는 임상적으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검사지수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결과 예측에 있어서 치은형을 분류하여 예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